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도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송 방 현

2020년 12월

제주도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송 방 현

이 논문을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송방현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주 경 (인)
위 원 황 경 수 (인)
위 원 고 태 호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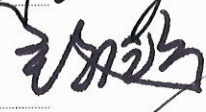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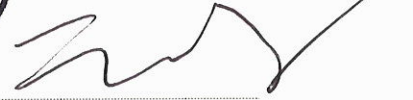
A Study on Cultural Disparities Solutions among Regions in Jeju Island

Bang Hyeon So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 Soo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0 . 12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Kim Ju Kyong 
Hwang Kyungsoo 
Ko Tae Ho 

Date . .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7
II. 이론적 고찰	8
1. 선행연구 고찰	8
1) 거시적 차원 연구	8
2) 미시적 차원 연구	10
3) 선행연구 고찰 결과	13
2. 문화격차의 정의	14
1) 문화의 정의	14
2) 문화격차의 정의	16
3. 문화격차의 해소 필요성	19
4. 문화만족도 분석 모형	21
1) 문화만족도 영향요인	21
2) 문화만족도 분석모형	26
III. 제주지역 사례분석	28
1. 제주지역 문화기반 현황 분석	28
1)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	28
2) 문화기반시설	29
3) 지역축제	31

2. 제주지역 문화만족도 조사	33
1) 조사 개요	33
2) 조사 내용	33
3) 분석결과	35
3. 분석결과 합의	48
IV. 정책적 제언	51
1.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51
2. 문화예술활동 이용 기회 확장	52
3. 문화경험의 축적 방안 마련	53
V. 결론	54
【참고문헌】	57
ABSTRACT	62
부록(설문지)	64

표 목 차

<표 II-1> 문화격차의 거시적 차원 연구	9
<표 II-2> 문화격차의 미시적 차원 연구	11
<표 II-3> 문화의 정의	15
<표 II-4> 문화격차의 정의	17
<표 II-5> 선행연구의 문화격차 영향요인 - 접근과 이용	23
<표 II-6> 선행연구의 문화격차 영향요인 - 경험	26
<표 III-1> 제주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	28
<표 III-2> 연도별 제주 공공문화시설 현황	30
<표 III-3> 2018년 제주 지역축제 참여율	32
<표 III-4> 제주 지역축제 수	33
<표 III-5> 문화만족도 조사 내용 및 항목	34
<표 III-6>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표 III-7> 문화만족도 탐색적 요인분석	38
<표 III-8> 항목별 요인구조분석	38
<표 III-9> 항목 총계 통계량	40
<표 III-10> 기술통계량	41
<표 III-11> 문화만족도와 각 문항의 상관관계	43
<표 III-12> 요인별 상관관계	44
<표 III-13>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따른 항목 간 평균 차이	45
<표 III-14>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다중회귀분석	47
<표 III-15> 제주도 4개 권역별 문화만족도 집단별 평균	48
<표 III-16> 제주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문화만족도 집단별 평균	49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흐름도	6
<그림 II-1> 분석 흐름	27
<그림 III-1> 제주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	29
<그림 III-2> 연도별 제주 공공문화시설 개소	30
<그림 III-3> 연도별 제주 공공문화시설 이용자 수	31
<그림 III-4> 2018년 제주 지역축제 참여율	32

국문초록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시작으로 문화양극화, 지역양극화 등 여러 가지 사회분야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퍼져나갔다. 이런 양극화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대한민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여, 특히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이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문화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문화에 대한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문화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문화환경 발전이 활성화 된 동지역과 상대적으로 문화환경 수준이 미비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물리적인 격차와 경험적인 격차를 알아보았다. 물리적인 격차는 문헌을 분석하였고, 경험적인 격차는 문화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물리적인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험적인 격차는 문화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문화격차가 나타났다. 또, 문화시설접근, 문화향유여유, 거주지문화여건,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 중에서 문화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문화여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지문화여건에 대해 만족할수록 문화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었으며,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더 문화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지역 간 문화격차를 알아보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지역의 문화격차를 알아본 결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문화예술 활동 이용 기회 확장, 문화경험의 축적 방안 마련을 해소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헌자료의 한계로 물리적 문화격차에 대해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웠다. 이 외에도 지역적 여건만이 아닌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격차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격차, 영향요인, 문화만족도, 균형발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화와 산업화 역시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잇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소득양극화를 시작으로 문화양극화, 지역양극화, 정보양극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조명되었다(서우석 외, 2010, 문진영, 2004, 장혜미 외, 2014 등).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문화격차는 문화를 기준으로 생기는 차이를 뜻한다. 양극화현상은 다른 말로 하면 ‘격차’라고 할 수 있다. 격차란 어떤 기준으로 나뉜 단위들 간의 차이를 뜻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1984)에 따르면 다른 분야의 격차에 비해 문화격차는 특히 그 차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 부르디외는 현금, 자산과 같은 경제자본처럼 문화에도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는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 달리 취향, 태도, 신념 등 무형의 형태를 띠는데, 경제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계급을 구분지어 사회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자본의 소유 정도에 따라 점점 문화적인 접근과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문화적 대상을 이용하는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프랑스는 귀족과 평민의 계급이 오래 이어져 내려왔지만 한국의 경우는 프랑스와 조금 다르다. 조선시대 기득권층이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정치적·경제적 성장으로 경제자본의 불평등 구조가 생겨났다. 이어서 경제자본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문화자본의 격차가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런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한 문화소비의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런 문화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의 상황 역시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문화·여가부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 44.4%의 평일 여가시간은 5시간 미만이며, 여가시간을 제주도민의 47.1%는 TV시청으로, 1.4%는 문화예술 참여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불만족 이유 1위가 ‘직장 일로 인한 시간 부족’이고 2위가 ‘경제적 부담’인 것을 보면 제주도민의 절반정도는 실질적인 여가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혹여 여가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에 TV시청을 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예술인들의 교류도 쉽지 않고, 예술공연과 같은 문화적 욕구를 채울만한 활동이 타지방에 비해 부족하기 쉽다.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부족한 상황이다. 신현택(2002), 장세길 외(2013) 등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문화활동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울 경우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에 주목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문화에 대한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 나아가 문화격차의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설명한 문화자본의 차이는 문화부유층과 문화빈곤층 두 계층을 만들어내며, 각 계층 간에 점점 벌어지는 격차는 계층 간 이동을 점점 힘들게 하여 사회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어떤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 내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문화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격차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 국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대부분 문화격차의 해소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찍부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을 문화정책의 핵심목표로 삼아왔는데, 1990년대 이전 중앙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형식적인 문화복지의 실현을 지향한 것이었다. 당시의 문화정책은 문화재 관리와 문화인프라 확장 사업에만 한정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실현 이후에나 지역문화정책이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서우석 외, 2010). 이때부터 문화정책이 형식적인 문화복지의 실현에서 근본적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출범하여 문화격차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강조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문화 분야의 핵심사항으로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문화격차 해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동안 하드웨어적 문화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어 있었다. 최근 문화정책이 하드웨어적 문화인프라 구축에서 소프트웨어적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무게가 옮겨 가고 있지만, 아직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나 제도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그 동안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도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연구들을 대부분 문화시설, 교육프로그램 수, 문화 관련종사자 수 등 물리적인 문화기반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왔었다(이재희, 2010, 박용치, 2003 등). 하지만 이는 문화격차를 물리적 기반이라는 다소 협소한 의미의 관점으로만 접근한 것이다.

기존의 문화격차는 물리적인 문화기반시설의 차이를 의미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서 체감하는 이용과 경험 측면의 문화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서우석 외(2010)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예술위원회가 수행한 연구결과에는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비관람자들은 관람활동을 자기에게 어울리는 여가활동으로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문화자본 즉, 경험이 문화소비의 전제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접근성에 따른 문화격차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용과 경험적 차원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근본적으로 문화격차에 다가가

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연구범위를 물리적인 문화인프라의 접근과 이용의 격차에서 문화경험의 격차까지 확장하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문화격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제주도 읍·면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문순덕 외 (2015)의 연구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제주지역 문화격차의 해소방안을 연구한 논문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문순덕 외(2015)에서는 제주의 문화격차를 공급의 부분에서는 잘 정리하였지만 수요의 부분에서는 문화 향유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접근성과 비용이 문화향유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제주도로 한정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공급의 부분인 물리적 문화격차를 알아보고, 수요의 부분인 경험적 문화격차는 문화만족도를 조사 및 분석한다. 문화향유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문화격차인 문화만족도를 파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두었다. 이렇게 제주도의 문화격차를 분석해보고, 분석결과를 통해 제주지역 문화격차의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알아보고 해소방안을 탐색하려는 논문으로, 먼저 공간적인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다. 부르디외(2006)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위계화 된 지리적 공간에서 한 계급 또는 계급분파가 분포된 상황은 사회공간에서 그 계급 또는 계급분파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내부의 위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에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7조 2항은 “인구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다.”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리 합병 등)에서는 “1.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2.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위를 인구 수와 발전정도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달라지는 문화인프라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제주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구분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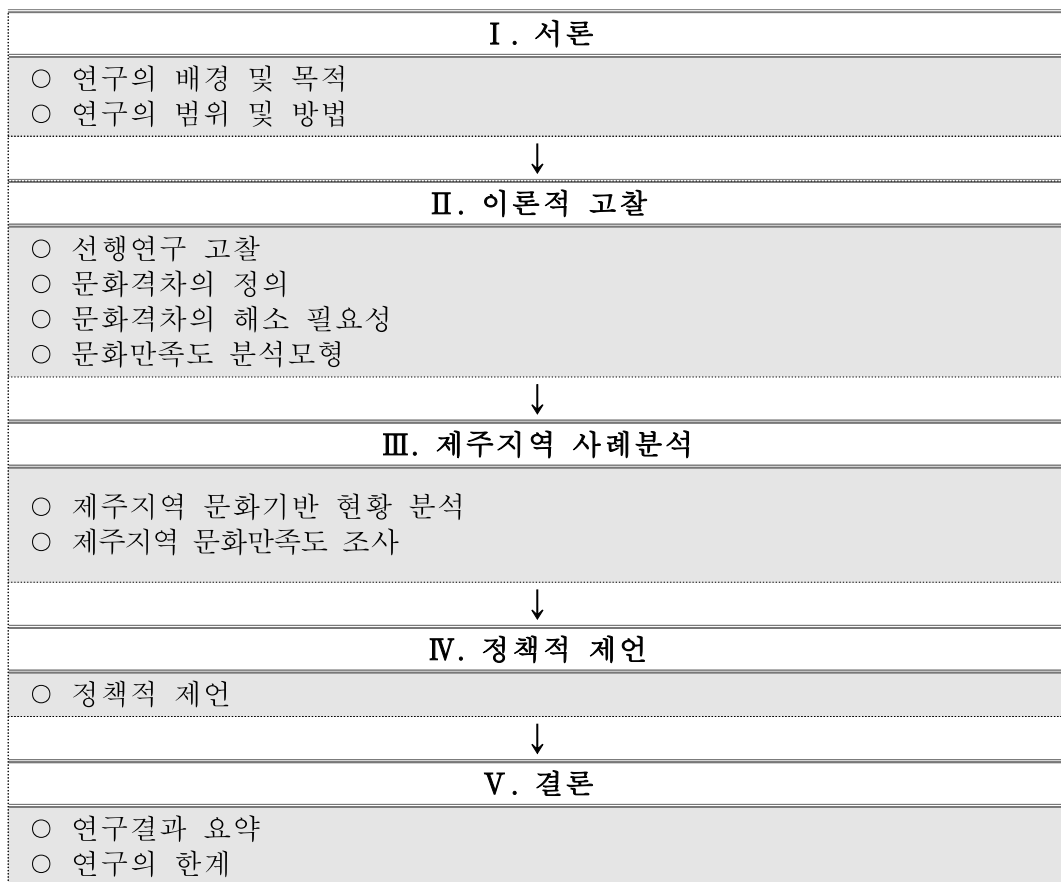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문화격차의 범위를 물리적 격차와 경험적 격차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물리적 격차인 문화시설의 격차에 집중했지만, 이재희(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비해 문화시설 측면에서 지역 간 불평등도는 많이 감소했다. 따라서 그동안 관련 연구의 결과에서 여러번 지적되어온 비수도권 ‘지역문화시설의 부족’은 그 의의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각 지역에 위치하는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비교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지역민의 문화만족도와 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민의 특징, 문화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해소방안을 탐색하는 것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를 문화환경 발전이 활성화 된 동지역과 상대적으로 문화환경 수준이 미비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분석한다.

첫째, 먼저 문화격차의 물리적인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통계를 참고하여 제주지역 전체의 문화예산, 문화시설 수, 지역축제 수 등 문화기반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문화격차의 경험적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인구비중에 맞추어 동지역과 읍·면지

역 도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문화만족도조사를 실시해 대상자의 응답이 문화만족도에 대해 접근·이용·경험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총 5장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격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문화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고, 문화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문화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 요인을 활용한 문화격차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III 장에서는 물리적 문화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지역통계 및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의 문화기반 현황을 정리하고, 경험적 문화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도민 대상 문화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IV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고, 마지막 V 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종합적인 해석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를 요약하면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화만족도 분석을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 및 정책보고서, 서적, 인터넷 뉴스 등을 탐색하여 문화격차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화 하며,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가 설정한 문화만족도 영향요인을 탐색한다. 기존의 연구가 설정한 영향요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문화만족도 영향 요인을 재구성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문화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문화격차를 물리적 문화격차(공급)와 경험적 문화격차(수요)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물리적 문화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등 공신력있는 관련기관의 공식 통계자료와 서적을 토대로 제주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문화시설기반 현황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둘째, 경험적 문화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문화만족도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통해 이변량 상관분석, 독립표본t검정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문화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연구마다 기준과 범위가 상이했다. 문화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기본적인 틀과 같이 박용치(2003)의 기준에 따라 문화격차를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연구들은 문화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론에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문화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류해보면 정광호 외(2006)에서 나눈 것과 같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 차원 연구는 전체적인 문화격차 현상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며, 미시적 차원 연구는 문화격차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시적 차원 연구

그동안 국내에서는 문화격차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외국에 비해 거시적 차원에서 문화격차의 시대적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역적 범위를 국가적 차원으로 둔 연구나 보고서는 있었으며, 다년간의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 등 비교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정광호 외(2006)는 다년간의 전국문화향수실태자료와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를 근거로 문화격차 변인을 탐색하여 문화바우처 정책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우석 외(2010)는 1990~2009년 문화향수 관련조사를 분석하여 문화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에 나타난 변화를 실증하였다. 이재희(2010)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최근의 시기

에 걸쳐 어떻게 변동했는지 분석하였으며, 문화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문화격차를 분석하였다. 오인수(2017)는 행정부 수반의 변경에 따라 대중들의 문화예술 소비행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정권별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의 차이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김동훈(2019)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장된 문화향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확장된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문화정보서비스 개선방안 전략을 도출하였다.

<표 II-1> 문화격차의 거시적 차원 연구

선행연구	주요내용
정광호 외(2006), 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문화바우처 추진근거로서 문화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음 2000년, 2003년, 2006년 전국 문화향수실태 자료와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를 근거로 문화격차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 저소득층 문화지원 확대 및 문화리터러시 향상에 초점을 둔 문화바우처 운영 역설
서우석 외(2010),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1990~2009년 문화향수 관련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에 나타난 변화를 실증
이재희(2010), 지방자치 이후 지역간 문화격차 변동	지역간 문화격차를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최근의 시기에 걸쳐 어떻게 변동했는지 분석하며, 문화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문화격차를 분석
오인수(2017), 역대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소비격차 비교에 관한 연구	행정부 수반의 변경에 따라 대중들의 문화예술 소비행태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정권별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의 차이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로 비교 분석
김동훈(2019), 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정보서비스 개선 방향 연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된 문화향유개념을 설명하고, 지역간 문화향유 현황 분석, 정부정책 분석, 정보서비스 현황분석을 탐색하여 문화격차 변인추출, 확장된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문화정보서비스 개선방안 전략을 도출

2) 미시적 차원 연구

미시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박용치(2003)의 연구의 흐름을 따랐으며, 그 안에서도 특정 지역의 문화격차요인을 파악한 연구, 특정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

먼저, 문화격차에 대한 국내 미시적 차원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박용치(2003)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 여부를 문화인프라, 문화소프트웨어,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문화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박용치(2003)의 기준에 따라 나뉜 문화격차를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권중(2004)은 서울시민의 계층별, 학력별, 지역별 문화격차가 있음을 가정하고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와 문화격차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제기하였다. 엄재연(2007)은 부산의 문화전략과 부산시민의 문화향유 실태 및 격차 파악, 정책방향 제시하였다. 한상우 외(2009)는 경남 지역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효율적 문화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희진(2015)은 안동시 지역문화 기반 시설 접근도에 따른 문화격차 파악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현황 파악, 문화기반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세길 외(2013)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다층적 지역유형분류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정책 방향 제언하였다. 김태형 외(2015)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서울시민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과 격차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하였다. 문순덕 외(2015)는 제주의 읍면지역 주민 대상 문화격차 의식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문화격차의 특정요인에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서용 외(2007)는 문화적 경험이나 예술적 경험과 같은 ‘문화자본’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하였다. 초의수(2008)는 사회복지, 문화여건 등 삶의 질, 즉 사회지표 중심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구조의 특성을 파악 후 정책적 제언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상대적 접근성의 차이가 문화경험률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였다. 정철현 외(2010)는 문화향수 영향요인에서 개인적변수와 환경

적 변수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문화예술을 향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수 중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다른 수요와 달리 문화적 환경, 생활방식, 경험, 교육에 의해 선정된 취향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이며 접근 기회의 확대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교육으로 인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박태선 외(2014)는 평균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문화향유기회 격차 분석, 지역주민 면담조사를 통해 문화향유만족도 격차를 분석,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하였다. 이지훈(2016)은 스토리텔링, 접근성, 촉진, 문화이용 목적, 공연이용 만족도, 시설 만족도, 문화향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실증분석하여 문화산업계 콘텐츠적 제안점 제시하였다.

<표 II-2> 문화격차의 미시적 차원 연구

선행연구	주요내용
박용치(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 여부를 문화인프라, 문화소프트웨어,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문화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주장
조권중(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민의 계층별, 학력별, 지역별 문화격차가 있음을 가정하고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와 문화격차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
엄재연(2007), 세계화와 부산지역 문화격차 실태	부산의 문화전략과 부산시민의 문화향유 실태 및 격차 파악, 정책방향 제시
한상우 외(2009), 경상남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경남지역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효율적 문화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제시
이희진(2015), 지역문화기반 시설에 따른 문화격차	안동시 지역문화 기반 시설 접근도에 따른 문화격차 파악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현황 파악, 문화기반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 논의
장세길 외(2013), 문화격차 해소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유형분류의 다층적 접근방법 모색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다층적 지역유형분류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정책 방향 제언

선행연구	주요내용
김태형 외(2015),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서울시민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과 격차를 분석하여 정책적 합의 도출
문순덕 외(2015),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연구	제주의 읍면지역 주민 대상 문화격차 의식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 제시
김서용 외(2007), 문화자본은 중요한가?-문화격차와 주관적 안녕에 대한 실증분석-	문화적 경험이나 예술적 경험과 같은 '문화자본'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초의수(2008),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분석; 문화와 복지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문화여건 등 삶의 질, 즉 사회지표 중심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구조의 특성을 파악 후 정책적 제언
정철현, 황소하. (2010). 예술마케팅 기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확대 방안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예술마케팅 기법을 이용하여 문화향수 확대 방안 제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관계	지역 주민들이 문화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상대적 접근성의 차이가 문화경험률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박태선 외(2014),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평균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문화향유기회 격차 분석, 지역주민 면담조사를 통해 문화향유만족도 격차를 분석,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이지훈(2016), 스토리텔링, 문화이용 목적, 접근성, 축진이 문화이용 만족 및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토리텔링, 접근성, 축진, 문화이용 목적, 공연이용 만족도, 시설 만족도, 문화향유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실증분석하여 문화산업 계 콘텐츠적 제안점 제시

3) 선행연구 고찰 결과

문화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년간의 통계 혹은 역대 정부 등 시간의 순서에 따라 문화격차의 흐름과 변화를 알아본 거시적 차원의 연구(정광호 외, 2006, 서우석 외, 2010, 오인수, 2017 등)가 있었으며, 문화격차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분석하거나(조관중, 2004, 엄재연, 2007 등), 문화격차를 특정 요인에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김서용 외, 2007, 초의수, 2008 등)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연구들이 있었다. 박용치(2003) 이후의 문화격차 관련 연구는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를 기준으로 연구한 미시적 차원의 문화격차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연구들은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의 문화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는 문화접근과 이용을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분석한 문순덕 외(2015)의 정책보고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문순덕 외(2015)는 문화만족도의 조사 대상을 연구기간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제주의 읍·면지역 주민만을 설정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러므로 동지역의 주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주민들의 문화만족도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본 연구와 같이 문화격차 판단 기준을 공급과 수요의 측면으로 두어 공급은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수요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수요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시설 이용 기회, 참여 활동의 개인적 만족도, 지역의 여건, 정책, 소득수준 등을 두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문화격차의 기준은 박용치(2003), 문순덕 외(2015)와 같이 물리적 문화격차와 경험적 문화격차로 두었으며,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 제주의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상대적인 문화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또, 문화만족도 영향요인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접근, 이용’ 두 가지를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르디외가 본인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같은 계급 구성원들에게 통계적으로 공통적인 초기경험들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독특한 통합을 발생시킨다.”(Bourdieu, 1977: 79)에서 경험이 중요한 문화격차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경험’을 영향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문화만족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주도의 동지역과 읍·면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접근, 이용, 경험’의 세 가지 영향요인을 두고 설계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조사·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이를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문화격차와 그 해소방안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함에 있다.

2. 문화격차의 정의

1) 문화의 정의

세계적으로 문화(文化)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미개하다.’ 라고 할 때의 문화는 문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동물은 문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우리는 흔히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의 예술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문화활동을 한다.’ 라고 말한다. 이 때의 문화는 예술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컬쳐쇼크’라는 말에서의 문화(컬쳐)는 어떠한 문화권의 사람이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고 충격을 받는다는 뜻으로 앞서 사용한 뜻과 달리 생활방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문화는 학자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레이먼드(Raymond Williams)는 문화의 개념을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 혹은 작품’, ‘삶의 방식으로 사회의 곳곳에 퍼져 있는 산물, 학습되어지는 방식’, ‘과정과 발전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 세 가지로 보았다. 인류학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다.” 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에서도 임학순(2003)이 문화를 ‘생활양식으로의 문화’, ‘지적, 정신적, 예술적 산물로의 문화’, ‘상징체계로의 문화’로 정의하였으며, 유승호(2008)는 문화를 ‘문명과 유사한 것으로서 공통으로 약속된 특정한 사고체계나 행동양식으로서의 개념’,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유·무형적 축적물로서의 개념’, ‘예술작품이나 예술활동 등 예술적인 것으로의 개념’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정홍익 외(2008)은 문화를 ‘인지문화’, ‘규범문화’, ‘표출적 문화’로 구분하였다.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하였다.

<표 II-3> 문화의 정의

주체	문화의 정의
레이먼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 혹은 작품 - 삶의 방식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산물, 학습되어지는 방식 - 과정과 발전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
타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
임학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 - 지적, 정신적, 예술적 산물로의 문화 - 상징체계로의 문화
유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과 유사한 것, 공통으로 약속된 특정한 사고체계나 행동양식 -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유·무형적 축적물 - 예술작품이나 예술활동 등 예술적인 것
정홍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문화: 사실의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과학이나 지식 - 규범 문화: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도덕이나 법 - 표출적 문화: 인간의 정서적, 감성적 욕구나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예술과 문학

주체	문화의 정의
문화기본법 제3조	-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이렇게 학자마다 문화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세 가지의 맥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로 그 사회의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의 문화와 영국의 문화는 다르다.’ 라고 할 때의 의미로, 각 나라 혹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태도, 신념 등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둘째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교육되는 ‘상징체계’ 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상징적 의미를 낳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본래 문화의 어원은 cultus로 이는 경작을 뜻하는데 서양의 중세 후기에 최초로 문화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문화라는 단어가 농업을 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가 가지는 뜻은 농업에서 교양 혹은 높은 의식이라는 뜻으로 변해왔다.

셋째로 ‘예술적 활동이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문학, 연극, 영화 등 콘텐츠, 문화적 조형물 등 우리가 예술적이라고 말하는 물질적이며 비물질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2) 문화격차의 정의

본 논문에서 연구할 문화격차는 지리적·경제적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문화라는 기준점을 두고 양극으로 벌어지는 차이이다. 문화격차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에서 국내연구자들이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용치(2003)는 문화격차를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로 정의하였다.

조권중(2004)은 문화격차를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향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향수수준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김서용 외(2007)은 문화자본을 양적 또는 질적 차원의 문화적 경험으로 정의하며, 문화격차는 이와 같은 문화적 경험과 관련된 집단간 격차로 정의하였다.

장세길과 이중섭(2013)은 “문화격차는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우석과 김정은(2010)은 문화격차의 성격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근본적인 문화격차는 소수의 문화예술 향유층과 문화예술 관람행위에서 배제된 다수의 문화 빈곤층 사이에 존재한다. 둘째, 문화예술 관람행위에서 사회인구학적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가 문화격차로서 존재한다. 셋째, 문화예술 관람층의 분화와 상대적 격차의 발생가능성을 문화격차로 고려해야 한다.

이희진(2015)은 문화격차란 “문화주체 간의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접근과 문화이용 기회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문순덕(2015)은 지역간 문화격차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표 II-4> 문화격차의 정의

연구자	문화격차 정의
박용치(2003)	-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개인이 가지는 경제적·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인 문화시설 접근도의 차이)과 이용(개인이 가지는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이용도의 차이)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
조권중(2004)	-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향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향수수준의 차이

연구자	문화격차 정의
김서용 외(2007)	- 문화적 경험과 관련된 집단 간 격차
장세길과 이중섭(2010)	- 문화격차는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에서의 문화활동에 대한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
서우석과 김정은(2010)	- 소수의 문화예술 향유층과 문화예술 관람행위에서 배제된 다수의 문화 빈곤층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 문화예술 관람행위에서 사회인구학적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 - 문화예술 관람층의 분화와 상대적 격차
이희진(2015)	- 문화주체 간의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접근과 문화이용 기회의 차이
문순덕(2015)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

선행연구에서의 문화격차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문화격차를 ‘지역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특정 사회나 집단에서 공유되는 신념, 가치관, 태도 등 생활방식이 문화 향유기회와 만족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의 문화격차에 대한 개념을 보면 문화격차는 문화주체가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기회를 개인마다 다르게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문화격차를 문화접근과 문화이용의 측면 두 가지로 바라보았다.

문화접근의 격차는 문화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문화인프라에 문화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박용치(2003)에 의하면 문화접근도는 시민

이 문화시설 등 문화와의 연결이라고 보았다. 또,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인 요인이 문화접근성과 관련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화접근의 격차는 본 연구에서 보는 물리적 문화격차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이용의 격차는 문화인프라를 이용하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문화접근의 격차에 주요 영향을 주는 요인이 경제적 요인인 반면에 문화이용의 격차는 문화에 대한 개인의 문화적 소양, 의식수준, 취향, 연령 등 개인적 수요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이용의 격차는 개인이 가지는 문화적 수요의 격차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경험적 문화격차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격차의 해소 필요성

문화격차의 해소 목적은 문화소외층의 삶의 질 향상, 균형 있는 국가발전,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이다. 문화자본의 큰 특징 중 ‘축적성’에 있다. 즉 문화격차가 심해질수록 문화소외층의 삶의 질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문화부유층과의 괴리는 점차 커져, 그대로 방치한다면 문화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부르디외(Bourdieu, 1986)에 따르면 문화자본은 개인적 자본이라기보다는 가정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이 부유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아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유했던 가정이 몰락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면 문화수준을 누릴 여력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문화자본을 축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문화자본을 기준으로 생긴 계층의 재생산은 가정에서 장기간 축적되므로 그 격차를 뛰어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많고 여가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는 계층과 먹고사느라 바쁘고 여가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계층 사이에는 당연히 문화적인 접근과 이용의 격차가 생겨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크게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 문화격차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문화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첫째, 인권차원에서 해소필요성이 있다. 박태선 외(2014)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신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적 생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해소필요성이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사회전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분배의 정의관점에서 해소필요성이 있다. 박용치(2003)는 기회 단절로 나타나는 문화부유층과 문화빈곤층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사회적 갈등 해소의 관점이다. Robinson(1998)과 문진영(2004)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참여, 정치적 활동, 문화여가 활동 및 기회 참여가 제한된다면 포괄적 관점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았다. 서우석 외(2010)도 문화격차가 사회적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다섯째, 지역쇠퇴 원인제공 관점이다. 박태선 외(2014)는 문화를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 관광, 복지 등과 연계되어 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화격차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인권차원, 공리주의적 관점, 분배의 정의관점, 사회적 갈등의 해소 관점, 지역쇠퇴의 원인제공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화격차는 그 사회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도가 문화만족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파악해본다면 문화격차의 해소가 양극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최셋별, 2006)에 설득력을 더해줄 것이다.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지역 혹은 집단에 존재하는 문화격차를 다양하게 조사하여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접근의 격차는 통계자료의 검토로 파악이 되지만, 문화이용의 격차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문화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 문화이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주민들의 문화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춘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문화격차 해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화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

저 문화이용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문화격차 영향요인 탐색을 통해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의 4절에서 추출하고 재구성하여 문화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4. 문화만족도 분석모형

1) 문화만족도 영향요인

커닷 외(Cadotte et al, 1987)에서 말하는 만족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때문에 문화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문화격차의 수요부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화격차의 영향요인을 수요·공급, 객관적·주관적, 거시적·미시적 등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박용치(2003)의 기준인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르디외(Bourdieu, 1986)가 설명한 문화자본은 축적되는 경험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래드본 외(Radbourne, 2009)에서는 문화예술은 본인이 알고 이해하며, 그로인해 인지되는 만큼만 즐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만족도와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 베르곤찌와 스미스의 여러 연구자들은(Bergonzi & Smith, 1996a, 1996b, DiMaggio et al, 1978, McCain, 2003, Morrison, 1986)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에 비해서 추상미술처럼 평소 접근이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문화예술은 교육과 소비의 체험 축적에 따른 취향의 형성과 선호가 소비의 핵심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서양의 여러 연구자들은 경험이 문화만족도와 문화소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최명길 외, 2017)

이런 문화만족도 관련 서양 연구의 흐름은 국내연구인 최영섭 외(2000), 하미경 외(2013), 구은자(2012), 권현정 외(2008) 등에서 경험이 문화만족도 및 문화향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유재경 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문화만족도를 조사·분석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문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문화격차 관련 연구들을 접근과 이용을 설정한 연구, 문화만족도의 요인으로 경험을 설정한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접근과 이용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문화격차를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선행연구들이 설정한 영향요인들을 보면 문화접근도는 문화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문화이용도는 접근, 이용(문화행태), 경험(문화인식, 문화의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향과 같이 문화격차를 공급차원에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수요차원에서는 문화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조권중(2004), 엄재연(2007), 박태선 외(2014), 문순덕 외(2015) 등의 문화격차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접근과 이용을 만족도 조사에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접근과 이용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용치(2003)는 문화격차를 문화접근도(하드웨어)와 문화이용도(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유형을 정리하였다. 문화접근도는 문화인프라(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문화유산, 지역문화시설, 문화원, 문화의 거리)로, 문화이용도는 문화소프트웨어(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공연회수, 전시회수, 출판사, 인쇄소, 지역문화축제)로 세분화 하였다. 그는 문화격차의 주체를 개인으로 두어 개인의 문화접근도와 그가 보유한 경제력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조권중(2004)은 문화격차의 요인을 먼저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한 후 객관적 요인은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요인은 문화적,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강호진(2004)는 문화복지시설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을 능력 및 공감성, 접근가능성, 비용능률성, 신뢰 및 대응성, 이용편리성, 시설유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문화 복지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접근성 제고, 적정요금,

지방자치 참여 증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태선 외(2014)는 분석관점을 문화향유기회의 격차(공급차원)과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수요차원)으로 두었으며, 분석항목은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로 설정하였다. 문화격차 영향 요인으로 공급차원에서는 문화시설(시설의 수, 시설의 면적), 문화콘텐츠(문화프로그램수, 연간 문화공연일수), 향유기반(문화시설 직원 수, 운영예산 규모), 향유정도(관람객 수, 문화시설당 집객력, 프로그램당 집객력)으로 나누었으며, 수요차원은 문화시설(선호시설 방문횟수, 시설 이용 만족도, 시설로의 접근성), 문화콘텐츠(선호콘텐츠 활동빈도, 문화활동의 행태, 문화활동 제약요인), 향유기반(활동의 지역적 범위, 인접시설 이용도, 만족도 제고 항목), 향유정도(문화인식 및 체감도, 향유의지와 수요, 할애가능 시간과 비용)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김태형 외(2015)는 서울시 자치구의 문화향수수준과 문화환경 만족도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변수로는 문화환경 만족도(서울시의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향수 수준(전시회, 박물관, 전통예술공연, 극장, 스포츠경기 관람 횟수), 재산 수준(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합)을 설정하였다.

문순덕 외(2015)는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연구를 위해 문화예술향유 관련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으로 문화격차를 판단하였으며, 공급의 측면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수요의 측면은 관람자측면(문화시설,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행정 지원, 소득 수준)과 참여자측면(문화시설 이용 기회, 참여활동 관련 개인적 만족도, 지역의 여건, 지원 정책,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표 II-5> 선행연구의 문화격차 영향요인 - 접근과 이용

연구자	영향 요인
박용치(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접근도: 문화인프라(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문화유산, 지역문화시설, 문화원, 문화의 거리) - 문화이용도: 문화소프트웨어(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공연회수, 전시회수, 출판사, 인쇄소, 지역문화축제) - 문화예산

연구자	영향 요인
강호진(2004)	-문화복지서비스 주민만족도 영향 요인: 능력 및 공감성, 접근가능성, 비용능률성, 신뢰 및 대응성, 이용편리성, 시설 유형성
조권중(2004)	- 객관적 요인: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 - 주관적 요인: 문화적, 심리적 요인
박태선 외(2014)	- 문화향유기회의 격차(공급차원): 문화시설(시설의 수, 시설의 면적), 문화콘텐츠(문화프로그램수, 연간 문화공연일수), 향유기반(문화시설 직원 수, 운영예산 규모), 향유정도(관람객 수, 문화시설당 집객력, 프로그램당 집객력) - 문화만족도의 격차(수요차원): 문화시설(선호시설 방문횟수, 시설이용 만족도, 시설로의 접근성), 문화콘텐츠(선호콘텐츠 활동빈도, 문화활동의 행태, 문화활동 제약요인), 향유기반(활동의 지역적 범위, 인접시설 이용도, 만족도 제고항목), 향유정도(문화인식 및 체감도, 향유의지와 수요, 할애가능 시간과 비용)
김태형 외(2015)	-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시의 문화환경 만족도 - 문화향수 수준: 전시회, 박물관, 전통예술공연, 극장, 스포츠경기 관람 횟수 - 재산 수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합
문순덕 외(2015)	- 공급 :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 추진 실적 - 수요 : 관람자측면(문화시설,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행정 지원, 소득 수준), 참여자측면(문화시설 이용 기회, 참여활동 관련 개인적 만족도, 지역의 여건, 지원 정책, 소득수준)

(2) 경험

실질적으로 ‘문화격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이 문화만족도와 문화향수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선택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최영섭 외(2000)는 문화취향의 형성에 경제적 소득이 문화자본 즉 문화적 경험의 축적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분석하여 확인하였으며, 구은자(2012)에서는 유년기의 학습, 감상, 직접경험이 현재의 문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경험이 현재의 문화활동 또는 문화취향 형성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이

문화만족도 혹은 문화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광호 외(2006)는 문화격차를 거시차원과 미시차원으로 구분한 후 문화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거시차원(인구변화, 문화상품 가격, 여가 시간, 문화상품 관련 신경제 출현, 문화자본)과 미시차원(성별, 나이, 인종, 소득, 교육, 공간, 개인별 문화경험, 개인별 문화네트워크)으로 세분화 하였다.

엄재연(2007)은 부산지역의 문화격차를 문화인프라(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전통문화자원)와 문화향유 실태(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문화동호회 활동, 문화예술교육 참여, 문화향유기회 확대정책 순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김서용 외(2007)는 문화자본과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문화자본(문화경험 빈도, 문화경험의 다양성, 문화경험을 위한 지출), 주관적 안녕(인지적 차원의 삶의 만족, 정서적 차원의 행복)으로 세분화 하였다.

정철현 외(2010)에서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력, 성년기 예술교육, 부모의 관람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위해 성년기 예술교육 기회증대와 부모의 문화예술관람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미경 외(2013)에서는 문화예술학습활동을 관람활동과 체험활동으로 분류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학습활동 참여도 증가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외(2017)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이 높을수록 미술관 체험 만족도가 증가하며, 문화예술활동 이용이 많을수록 미술관 체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보리 외(2019)에서는 만족은 직접적 의사표시이며 즉각적 감정을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지표이며, 문화예술활동의 지속적 향유를 위한 원동력이 만족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문화예술향유활동을 관람과 참여로 구분하여 향유자가 느끼는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예술참여자가 관람자보다 여가 만족이 높았으며, 만족도가 높은 문화예술참여활동이 향유계층의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경험적 문화격차를 파악함에 있어서 접근과 이용뿐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주장과 같이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문화만족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II-6> 선행연구의 문화격차 영향요인 - 경험

연구자	영향 요인
정광호 외(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차원: 인구변화, 문화상품 가격, 여가 시간, 문화상품 관련 신경제 출현, 문화자본 - 미시차원: 성별, 나이, 인종, 소득, 교육, 공간, 개인별 문화경험, 개인별 문화네트워크
엄재연(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인프라: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전통문화자원 - 문화향유 실태: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문화동호회 활동, 문화예술교육 참여, 문화향유기회 확대정책 순위
김서용 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경험 빈도 - 문화경험의 다양성 - 문화경험을 위한 지출
정철현 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변수 - 환경적 변수
하미경 외(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람 - 문화체험
나보리 외(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람 - 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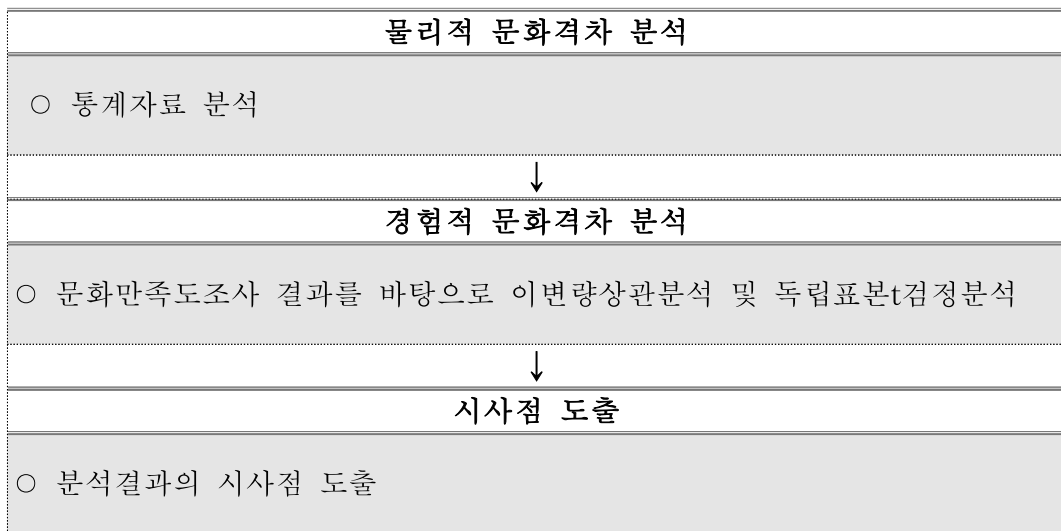
2) 문화만족도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문화만족도는 ‘현재 본인의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만족 정도’를 뜻한다. 향유란 ‘누리어 가지는 일’이며, ‘누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이다.

먼저, 물리적 문화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통계를 정리하여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유 접근 기회를 파악하였다. 내용은 연도별 문화예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수, 지역축제 수 등이다.

그 다음은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접근, 이용, 경험이라는 요인들이 문화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Ⅲ장에서는 이런 영향요인들을 가지고 설계한 설문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이 문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거주지역 형태에 따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별로는 문화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Ⅱ-1> 분석 흐름

Ⅲ. 제주지역 사례분석

1. 제주지역 문화기반 현황 분석

제주지역의 물리적 문화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를 참고하여 제주지역의 문화기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통계자료가 누락된 항목을 제외하고 2010년에서 2018년까지의 현황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 문화와 여가 영역은 짝 수 해마다, 즉 2년 간격으로 조사되므로 문화와 여가부문의 가장 최신자료인 2018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주지역 문화기반은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 조사한 영역 중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 ‘문화기반시설’, ‘지역축제’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1)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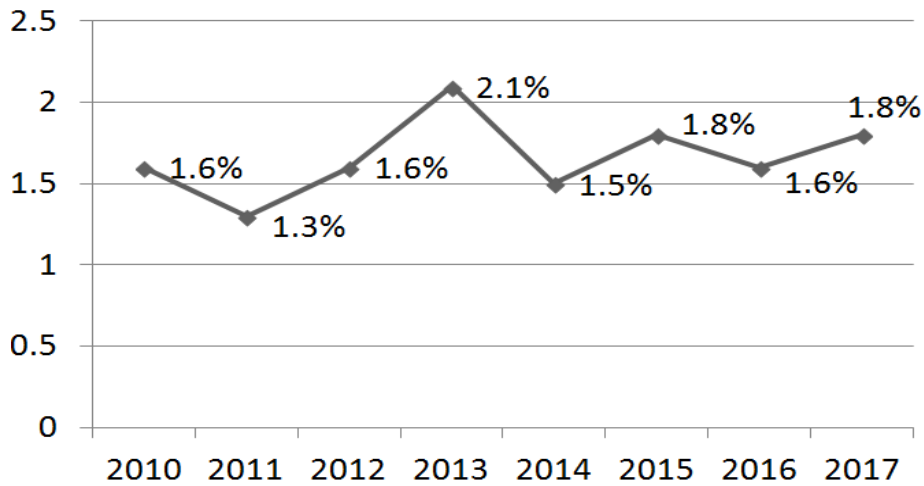
제주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은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 1.6%에서 2017년 1.8%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1> 제주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

(단위 : 원, %)

연도	전체예산액	문화예술예산비중(%)	총 문화예술 예산액
2010	2,968,457	1.6	47,632
2011	3,178,837	1.3	41,291
2012	3,564,910	1.6	56,036
2013	3,931,831	2.1	81,779
2014	3,993,042	1.5	59,770
2015	4,362,713	1.8	79,123
2016	4,792,650	1.6	75,189
2017	5,516,109	1.8	99,789

자료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그림 III-1> 제주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

자료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에서는 문화시설의 종류를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 공공문화시설로 설정한 공공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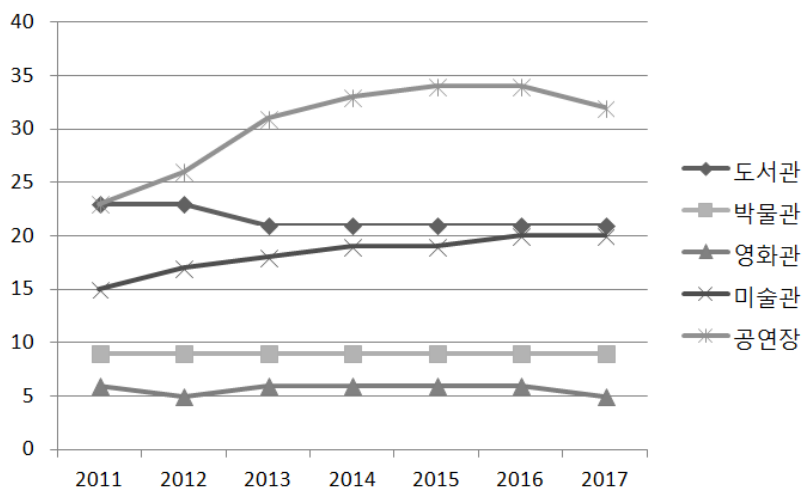
연도별 제주 공공문화시설 개소 수를 살펴보면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2011년 23개에서 2013년 21개로 감소한 후 2017년까지 변화가 없었고, 박물관은 2011~2017년까지 9개로 변화가 없었고, 영화관은 2012년과 2017년 5개를 제외하고 6개로 나타났다. 미술관은 2011년 15개에서 2017년 20개로 6년간 5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장은 2011년 23개에서 2016년 34개까지 늘어나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개가 감소한 32개로 나타났지만 6년간 9개가 늘어나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 공공문화시설로 설정한 시설 중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연도별 제주 공공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제주도	76	80	85	88	89	90	87
	제주시	51	52	52	55	56	57	55
	서귀포시	25	28	33	33	33	33	32
	이용자 수	10,911	11,724	12,356	12,789	12,247	12,423	11,970
도서관	제주도	23	23	21	21	21	21	21
	제주시	13	13	11	11	11	11	11
	서귀포시	10	10	10	10	10	10	10
	이용자 수	3,001	3,059	3,061	2,979	2,969	2,935	2,983
박물관	제주도	9	9	9	9	9	9	9
	제주시	8	8	8	8	8	8	8
	서귀포시	1	1	1	1	1	1	1
	이용자 수	2,376	2,261	2,119	1,787	1,921	2,092	1,608
영화관	제주도	6	5	6	6	6	6	5
	제주시	5	4	5	5	5	5	4
	서귀포시	1	1	1	1	1	1	1
	이용자 수	1,368	1,361	1,845	2,081	1,961	2,226	2,263
미술관	제주도	15	17	18	19	19	20	20
	제주시	8	8	9	10	10	11	11
	서귀포시	7	9	9	9	9	9	9
	이용자 수	2,544	2,512	2,706	2,811	2,792	2,741	2,617
공연장	제주도	23	26	31	33	34	34	32
	제주시	17	19	19	21	22	22	21
	서귀포시	6	7	12	12	12	12	11
	이용자 수	1,622	2,531	2,685	3,131	2,604	2,429	2,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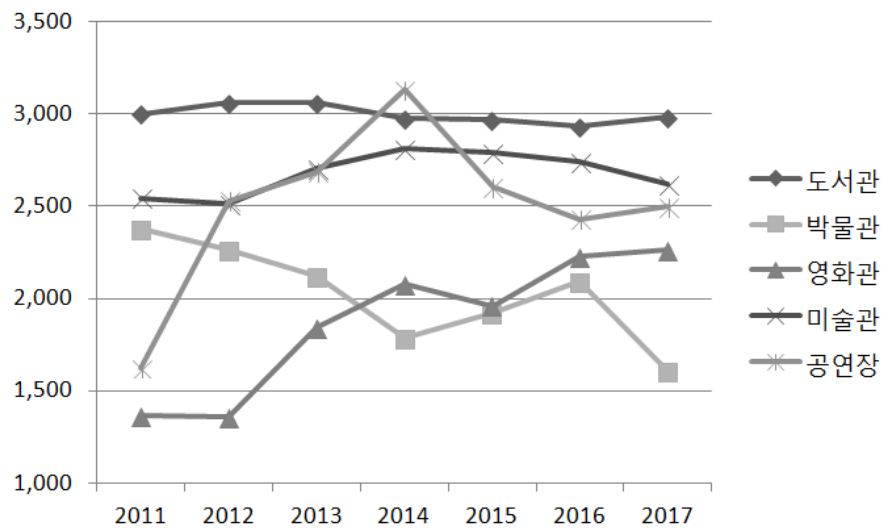
자료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그림 III-2> 연도별 제주 공공문화시설 개수

자료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연도별 제주 공공문화시설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도서관, 미술관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물관은 감소하였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2011년 2,376명에서 2017년 1,608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영화관은 2011년 1,368명에서 2017년 2,263명으로, 공연장은 2011년 1,622명에서 2017년 2,499명으로 증가했다.



<그림 III-3> 연도별 제주 공공문화시설 이용자 수

자료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3) 지역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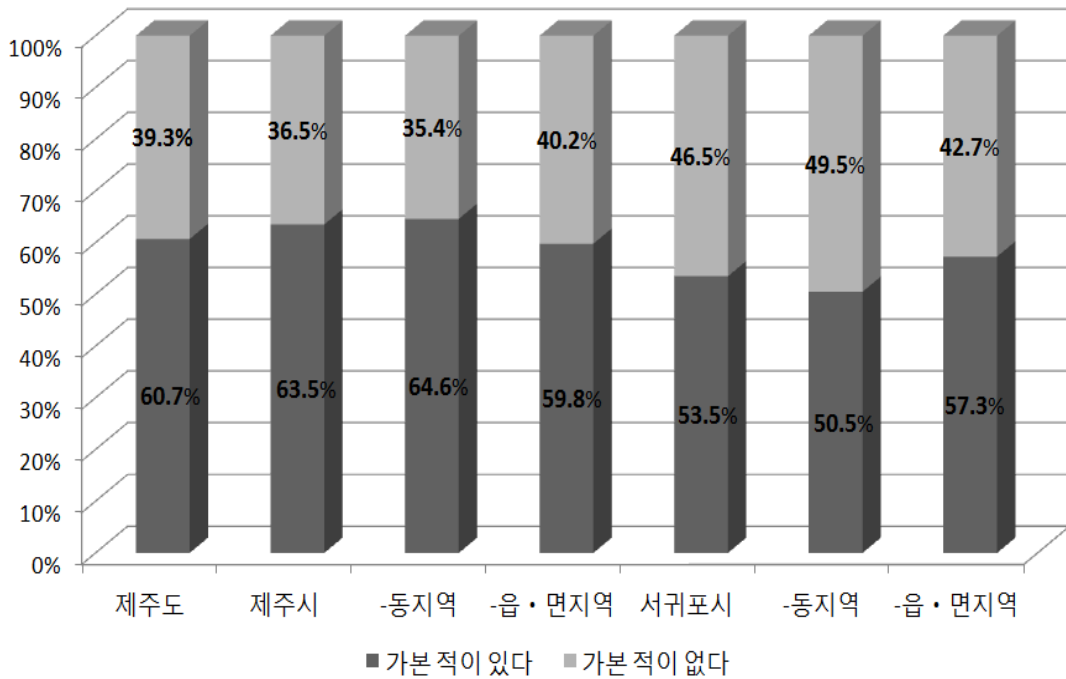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의하면 제주도민 전체 지역축제 참여율은 60.7%이며 제주시는 63.5%, 서귀포시는 53.5%로 나타났다. 지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축제 참여율이 제주시 동지역 64.6%, 제주시 읍·면지역 59.8%, 서귀포시 동지역 50.5%, 서귀포시 읍·면지역 57.3%로 나타나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6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2018년 제주 지역축제 참여율

(단위 : %)

시군	가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없다
제주도	60.7	39.3
제주시	63.5	36.5
-동지역	64.6	35.4
-읍·면지역	59.8	40.2
서귀포시	53.5	46.5
-동지역	50.5	49.5
-읍·면지역	57.3	42.7

자료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그림 III-4> 2018년 제주 지역축제 참여율

자료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지역축제의 수를 살펴보면 제주도 전체는 2011년 30개에서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여 2017년 28개가 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축제 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7개 차이가 났다. 최근 2개 년도를 보면 2016년 제주시 15개, 서귀포시 14개, 2017년 제주시 15개, 서귀포시 13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축제 수는 1~2개로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 제주 지역축제 수

(단위 : 건)

시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주도	30	28	29	30	28	29	28
제주시	16	16	18	16	16	15	15
서귀포시	14	12	11	14	12	14	13

자료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2. 제주지역 문화만족도 조사 및 분석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제주도 내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문화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20년 10월 19일 ~ 10월 26까지 제주 전 지역에서 제주도민을 모집단으로 인구비례 할당에 따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를 정함에 있어서 Kejcic & morgan(1970)의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한 표본의 크기를 참고하였다. 모집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경우, 모집단 크기와 상관없이 적어도 최소표본의 크기를 400명 이상으로 해야하므로 본 연구에서의 목표 표본수를 4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통계청 2018년 제주도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인구 비중에 맞추어, 세부적인 목표 표본 수를 제주시 동지역 223부(55.7%), 제주시 읍·면지역 67부(16.8%), 서귀포시 동지역 61부(15.1%), 서귀포시 읍·면지역 49부(12.3%)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원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항목

본 연구에서 문화격차 영향요인으로 추출한 접근, 이용, 경험이 문화만족도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요차원의 문화격차를 지역주민 설문조사로 실시한 조권중(2004), 박태선 외(2014), 문순덕 외(2015)의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다음의 표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문화만족도를 본인의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만족 정도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추출한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접근은 문화시설접근, 이용은 문화향유여유, 거주지문화여건, 경험은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로 구분하였다.

<표 III-5> 문화만족도 조사 내용 및 항목

구분		내용	참고문헌
문화만족도		-현재 본인의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만족 정도	.
접근	문화 시설 접근	-문화회관 및 복지관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다 -영화관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다 -공공박물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미술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도서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조권중, 2004 박태선 외, 2014 문순덕, 2015
이용	문화 향유 여유	-관람 등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강좌 등 문화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관람 등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강좌 등 문화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박태선 외, 2014
	거주지 문화 여건	-본인의 거주지역에 불만한 공연이나 전시가 있다 -본인의 거주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문순덕, 2015

구분	내용	참고문헌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본인의 거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어려움 없이 얻고 있다	
경험	문화 향유 경험 -부모님이 어린시절 연극, 음악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에 데려간 적이 있다 -학창시절 전시나 공연 등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다 -부모가 함께 서점에 가서 책(학습 관련 책 이외의 책)을 사준 적이 있다	조권중, 2004
	문화 향유 태도 -집에서 때때로 클래식음악이나 오페라 등을 듣는다 -전시나 공연을 비교적 잘 이해한다 -문화예술활동 관람 후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나 또는 자녀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권중, 2004 문순덕, 2015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거주지는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으로, 성별은 ‘남, 여’로,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월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 9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분석결과

자료의 분석은 질문지의 Editing, Coding과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18.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 하였으며, 지역 간 문화격차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 독립표본T검정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의 분석은 전체 표본 중 유효표본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성 166명(36.9%), 여성 284(63.1%), 연령대는 20대 118명(26.2%), 30대 157명(34.9%), 40대 70명(15.6%), 50대 74명(16.5%), 60대 27명(6.0%), 70대 이상 4명(0.9%), 거주지는 제주시 동지역 269명(59.8%), 제주시 읍·면지역 67명(14.9%), 서귀포시 동지역 86명(19.1%), 서귀포시 읍·면지역 28명(6.2%),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6명(1.3%), 고등학교 졸업 106명(23.6%), 2년제 대학교 졸업 69명(15.3%), 4년제 대학교 졸업 200명(44.4%), 대학원 졸업 65명(14.4%), 기타 6명(0.9%), 가구원 수는 1인 52명(11.6%), 2인 85명(18.9%), 3인 105명(23.3%), 4인 145명(32.2%), 5인 48명(10.7%), 6인 이상 15명(3.3%), 월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37명(8.2%), 200~300만원 미만 97명(21.6%), 300~400만원 미만 83명(18.4%), 400~500만원 미만 60명(13.3%), 500~600만원 미만 60명(13.3%), 600~700만원 미만 33명(7.3%), 700~800만원 미만 30명(6.7%), 800~900만원 미만 15명(3.3%), 900만원 이상 35명(7.8%)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66 36.9
	여성	284 63.1
연령대	20대	118 26.2
	30대	157 34.9
	40대	70 15.6
	50대	74 16.4
	60대	27 6.0
	70대 이상	4 0.9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67 14.9
서귀포시 동지역		86 19.1
서귀포시 읍·면지역		28 6.2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	1.3
	고등학교 졸업	106	23.6
	2년제 대학교 졸업	69	15.3
	4년제 대학교 졸업	200	44.4
	대학원 졸업	65	14.4
	기타(3년제, 6년제)	4	0.9
가구원 수	1인	52	11.6
	2인	85	18.9
	3인	105	23.3
	4인	145	32.2
	5인	48	10.7
	6인 이상	15	3.3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7	8.2
	200~300만원 미만	97	21.6
	300~400만원 미만	83	18.4
	400~500만원 미만	60	13.3
	500~600만원 미만	60	13.3
	600~700만원 미만	33	7.3
	700~800만원 미만	30	6.7
	800~900만원 미만	15	3.3
	900만원 이상	35	7.8
총 계		450	100.0

(2) 타당성 검정

먼저 문헌연구로 구성된 문항들에 대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등간척도인 리커트 7점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의 구성 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값이 클수록 혹은 1에 가까울수록 준비된 자료는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훈영, 2008). 본 자료의 KMO 값은 0.827이므로 0.8보다 높아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4328.590$, $p=0.000$ 으로 유의수준 0.05 기준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0.5보다 낮은 3개의 항목을 제외

하고,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1은 ‘문화향유여유’, 요인2는 ‘문화향유태도’, 요인3은 ‘문화시설접근’, 요인4는 ‘거주지문화여건’, 요인5는 ‘문화향유경험’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통상적으로 추출된 요인의 누적분산비가 60%이상이면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 추출된 5개의 요인의 누적분산비가 70.173%으로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7> 문화만족도 탐색적 요인분석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x^2	4328.590
	자유도	153
	p	0.000***

*p < 0.05, **p < 0.01 ***p < 0.001

<표 III-8> 항목별 요인구조분석

항목	요인명	공통성	성분					비고
			1	2	3	4	5	
체험형 시간 여유	문화향유여유	0.704	0.819	0.097	0.149	0.016	0.037	
관람형 시간 여유		0.723	0.810	0.120	0.223	0.055	0.014	
체험형 경제 여유		0.720	0.806	0.201	0.055	0.104	0.127	
관람형 경제 여유		0.663	0.762	0.205	0.143	0.067	0.125	
공연 이해정도	문화향유태도	0.777	0.179	0.813	0.174	0.118	0.201	
관람 후 관람평 교환		0.698	0.191	0.739	0.232	0.029	0.246	
평소 고급문화향유 경험		0.594	0.117	0.723	0.139	0.141	0.137	
나 또는 자녀 문화활동 관심		0.630	0.193	0.721	0.209	-0.005	0.173	
박물관	문화시설접근	0.780	0.197	0.318	0.774	0.182	0.087	
영화관		0.627	0.245	0.006	0.732	-0.005	0.177	
미술관		0.764	0.183	0.397	0.729	0.173	0.105	
도서관		0.571	0.051	0.247	0.665	0.173	0.188	
거주지역 문화예술 여건	거주지문화여건	0.833	0.053	0.060	0.072	0.906	0.007	
거주지역 볼거리		0.756	0.075	0.119	0.150	0.845	0.008	

항목	요인명	공통성	성분					비고
			1	2	3	4	5	
거주지역 문화 정보 습득		0.694	0.065	0.052	0.112	0.818	0.077	
어릴적 문화경험	문화 향유 경험	0.813	0.067	0.182	0.209	0.030	0.855	
어릴적 문화서적 구매경험		0.649	0.188	0.176	0.053	0.066	0.758	
학창시절 문화경험		0.635	0.001	0.257	0.190	0.004	0.730	
거주지역 소규모문화시설		0.476						제거
자녀의 예체능 전공 찬성		0.473						제거
타인과 본인의 문화수준 비교		0.210						제거
고유값			6.300	2.105	1.908	1.207	1.111	
분산비율			35.002	11.692	10.602	6.708	6.171	
누적분산비			35.002	46.694	57.297	64.005	70.175	

※Extraction Method: CFA(common factor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3) 신뢰성 검정

먼저 리커트 7점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에 대해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신뢰성을 가지고 설문 항목에 응답을 잘 하였는지를 알기위해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신뢰도 검토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내었다. 통상 한 요인에 속한 변수들이 그 요인을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잘 대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신뢰성 계수인 Cronbach’s의 α 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값으로 판단하며,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Cronbach’s의 α 계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0.6에서 0.7이면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이훈영, 2008)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Cronbach’s의 α 값이 0.8이상이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항목 전체의 Cronbach’s의 α 계수가 0.772에서 0.854로 높게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항목 총계 통계량에서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CITC: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는 항목별 신뢰도를 뜻하는 값인데 보통 0.3미만이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항목의 경우 0.3미만인 항목이 없으므로 모든 항목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9> 항목 총계 통계량

요인	변수명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CITC)	Cronbach 의 알파
문화시설접근	영화관	0.524	0.814
	박물관	0.746	
	미술관	0.732	
	도서관	0.588	
문화향유여유	관람형 경제 여유	0.665	0.854
	관람형 시간 여유	0.712	
	체험형 경제 여유	0.706	
	체험형 시간 여유	0.703	
거주지문화여건	거주지역 볼거리	0.699	0.843
	거주지역 문화 여건	0.778	
	거주지역 문화 정보 습득	0.650	
문화향유경험	어릴적 문화경험	0.723	0.772
	학창시절 문화경험	0.572	
	어릴적 문화서적 구매경험	0.546	
문화향유태도	평소 고급문화향유 경험	0.576	0.833
	공연 이해정도	0.762	
	관람 후 관람평 교환	0.702	
	나 또는 자녀 문화활동 관심	0.642	

(4) 항목별 상관관계 및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먼저 매우부정 1점에서 매우긍정 7점인 리커트 7점 척도로 조사한 각 변수별로 평균을 비교해보면, 문화만족도는 평균 3.24로 중간인 4점보다 낮게 나타나

응답자는 대체로 본인의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향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화회관 및 복지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4보다 낮게 나타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은 문화향유의지 및 수요, 지역문화격차의식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화향유의지 및 수요는 관람형 문화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 체험형 문화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 모두 평균이 4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문화향유 의지 및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문화격차의식은 본인의 거주지역에 불만한 공연이나 전시가 있는지 여부, 본인의 거주지역에 문화예술활동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본인의 거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어려움 없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4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는 문화향유에 대한 의지와 수요가 충분히 있으나 현재 본인의 거주지역의 문화적 환경이나 인식 등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은 문화자본의 축적, 문화경험의 이해 및 태도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화자본의 축적은 부모님과 학습지가 아닌 서적을 구매한 경험은 높게 나타났으나, 어린시절 부모님과 문화예술활동 경험, 학창시절 문화예술활동 경험, 집에서 고급문화예술활동 경험 등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문화경험의 이해는 전시나 공연을 비교적 잘 이해하는지 여부, 문화예술활동 후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부, 나 또는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관심 여부 등 모든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문화자본의 축적이 될만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향유하려는 의지와 관심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10>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분산
문화만족도	450	3.24	1.422	2.022
영화관	450	3.73	1.731	2.996

	N	평균	표준편차	분산
박물관	450	3.10	1.669	2.786
미술관	450	3.01	1.740	3.027
도서관	450	3.48	1.948	3.796
관람형 경제 여유	450	5.19	1.480	2.191
관람형 시간 여유	450	4.56	1.637	2.680
체험형 경제 여유	450	4.78	1.591	2.531
체험형 시간 여유	450	4.17	1.666	2.776
거주지역 볼거리	450	2.97	1.522	2.317
거주지역 문화 여건	450	2.91	1.482	2.196
거주지역 문화 정보 습득	450	3.06	1.513	2.291
어릴적 문화경험	450	3.52	1.951	3.805
학창시절 문화경험	450	3.41	1.650	2.723
어릴적 문화서적 구매경험	450	4.42	2.042	4.168
평소 고급문화향유 경험	450	3.49	1.961	3.845
공연 이해정도	450	4.04	1.593	2.537
관람 후 관람평 교환	450	4.45	1.709	2.921
나 또는 자녀 문화활동 관심	450	4.96	1.575	2.482

① 문화만족도와 항목 간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알아보는 분석방법이다(이훈영, 2006). 이 분석방법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별이 없으며, 상호 연관성을 분석할 두 변수가 모두 양적변수(등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여야 가능한데, 문화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설문문항은 등간척도인 리커트척도 즉, 양적변수이므로 문화만족도와 각 문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아닌 문화만족도와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만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표 III-1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 결과, 문화만족도와 어릴적 문화경험, 나 또는 자녀 문화생활 관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문화여건과 문화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r=0.653$, $p=0.000$ 으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대로 어릴적 문화서적 구매경험과 문화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r=0.094$, $p=0.046$ 으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린시절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유무와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은 문화만족도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선형의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의 독립변수가 서로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VIF(분산확대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보면 그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이훈영, 2008) 1을 초과하여 큰 값을 갖게되면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통상 VIF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분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제시된 표의 VIF값은 4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I-11> 문화만족도와 각 문항의 상관관계

(N=450)			
	Pearson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VIF값
문화만족도	1		
영화관	0.134**	0.004	1.580
박물관	0.235**	0.000	3.412
미술관	0.235**	0.000	3.399
도서관	0.181**	0.000	1.615
관람형 경제 여유	0.159**	0.001	3.204
관람형 시간 여유	0.148**	0.002	3.456
체험형 경제 여유	0.144**	0.002	3.320
체험형 시간 여유	0.129**	0.006	3.411
거주지역 볼거리	0.612**	0.000	2.300
거주지역 문화 여건	0.653**	0.000	2.647
거주지역 문화 정보 습득	0.592**	0.000	1.879

(N=450)

	Pearson상관계수	유의 확률(양쪽)	VIF값
어릴적 문화경험	0.085	0.070	2.286
학창시절 문화경험	0.140**	0.003	1.808
어릴적 문화서적 구매경험	0.094*	0.046	1.635
평소 고급문화향유 경험	0.153**	0.001	1.683
공연 이해정도	0.155**	0.001	2.844
관람 후 관람평 교환	0.115*	0.015	2.723
나 또는 자녀 문화활동 관심	0.085	0.073	1.831

*p < 0.05, **p < 0.01 ***p < 0.001

문화만족도와 문화시설접근, 문화향유여유, 거주지문화여건,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 간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문화만족도와 거주지문화여건 간의 상관관계 $r=0.709$, $p=0.000$ 으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대로 문화향유경험과 거주지문화여건은 $r=0.125$, $p=0.004$ 으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III-12> 요인별 상관관계

(N=450)

	문화만족도	문화시설접근	문화향유여유	거주지문화여건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
문화만족도	1.000					
문화시설접근	0.243***	1.000				
문화향유여유	0.173***	0.432***	1.000			
거주지문화여건	0.709***	0.317***	0.181***	1.000		
문화향유경험	0.126**	0.424***	0.267***	0.125**	1.000	
문화향유태도	0.156***	0.570***	0.426***	0.227***	0.499***	1.000

*p < 0.05, **p < 0.01 ***p < 0.001

② 각 항목별 지역 간 평균 차이 검정

독립표본 t검정 분석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은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에 사용하는

모집단 수에 따라 모집단이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 t검정을 이용하여 검정하며, 모집단이 3개 이상일 경우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한다(이훈영, 2006). 독립변수는 응답범주가 두 개인 명목척도, 종속변수는 등간 또는 비율척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에 제주도 동지역, 제주도 읍·면지역을 두고, 종속변수에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모든 변수를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따라 각 항목 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표본수가 30이상이므로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30을 넘게 되면 표본평균의 분포는 종모양의 정규분포로 간주한다고 하는 중심극한정리 정규성(이훈영, 2008)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문화만족도, 관람형 문화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 거주지역 볼거리, 거주지역 문화예술활동 여건, 학창시절 문화예술활동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는 6개의 항목에서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람형 문화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 거주지역 볼거리, 거주지역 문화예술활동 여건에서는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내지만, 학창시절 문화예술활동 경험에서는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표 III-13>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따른 항목 간 평균 차이

구분	동(N=355)		평균(M)	표준편차 (SD)	t(p)
	읍·면(N=95)				
문화만족도	동지역	3.34	1.398	2.849(0.005)**	
	읍·면지역	2.87	1.460		
영화관	동지역	3.81	1.702	1.876(0.061)	
	읍·면지역	3.43	1.814		
박물관	동지역	3.11	1.668	0.420(0.675)	
	읍·면지역	3.03	1.679		
미술관	동지역	3.01	1.721	0.070(0.944)	
	읍·면지역	3.00	1.816		
도서관	동지역	3.45	1.912	-0.641(0.522)	
	읍·면지역	3.59	2.086		

관람형 경제 여유	동지역	5.29	1.360	2.270(0.025)*
	읍·면지역	4.83	1.826	
관람형 시간 여유	동지역	4.64	1.580	2.109(0.035)*
	읍·면지역	4.24	1.808	
체험형 경제 여유	동지역	4.85	1.541	1.699(0.097)
	읍·면지역	4.52	1.750	
체험형 시간 여유	동지역	4.23	1.648	1.586(0.114)
	읍·면지역	3.93	1.721	
거주지역 볼거리	동지역	3.09	1.498	3.443(0.001)**
	읍·면지역	2.49	1.529	
거주지역 문화 여건	동지역	3.01	1.473	2.919(0.004)**
	읍·면지역	2.52	1.458	
거주지역 문화 정보 습득	동지역	3.11	1.478	1.489(0.137)
	읍·면지역	2.85	1.631	
어릴적 문화경험	동지역	3.54	1.882	0.315(0.753)
	읍·면지역	3.46	2.197	
학창시절 문화경험	동지역	3.31	1.591	-2.403(0.017)*
	읍·면지역	3.77	1.819	
어릴적 문화서적 구매경험	동지역	4.44	2.029	0.491(0.624)
	읍·면지역	4.33	2.096	
평소 고급문화향유 경험	동지역	3.47	1.915	-0.505(0.614)
	읍·면지역	3.59	2.131	
공연 이해정도	동지역	4.00	1.572	-1.072(0.284)
	읍·면지역	4.20	1.667	
관람 후 관람평 교환	동지역	4.43	1.668	-0.482(0.630)
	읍·면지역	4.53	1.861	
나 또는 자녀 문화활동 관심	동지역	4.89	1.556	-1.882(0.061)
	읍·면지역	5.23	1.627	

*p < 0.05, **p < 0.01 ***p < 0.001

(5) 다중회귀분석

문화시설접근, 문화향유여유, 거주지문화여건,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가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력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F=21.760(P < 0.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dj.R^2=0.504$ 으로 50.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거주지 문화여건은 $\beta=0.749(P < 0.001)$ 으로 문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성별의 남성, 거주지는 동지역, 연령대는 60대이상, 학력은 대학원 이상, 월평균가구소득은 900만원이상을 준거 집단으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거주지, 연령대, 학력은 문화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월평균가구소득은 700~800만원 미만 구간만이 $\beta=0.611$ ($P < 0.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구간의 유의확률은 0.05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평균가구소득 중 700~800만원 미만 구간은 900만원 이상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표 III-14>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다중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영향 요인	(상수)	0.786	0.394		1.994*		
	문화시설접근	0.011	0.044	0.011	0.254	0.569	1.758
	문화향유여유	0.048	0.043	0.045	1.102	0.672	1.489
	거주지문화여건	0.749	0.040	0.691	18.746***	0.812	1.232
	문화향유경험	0.044	0.039	0.048	1.107	0.588	1.701
	문화향유태도	-0.052	0.047	-0.052	-1.120	0.517	1.934
성별	여성	0.052	0.105	0.018	0.496	0.862	1.160
거주지	읍·면지역	-0.085	0.119	-0.025	-0.715	0.937	1.067
연령대	20대	-0.145	0.225	-0.045	-0.645	0.228	4.387
	30대	-0.370	0.219	-0.124	-1.689	0.205	4.890
	40대	-0.428	0.232	-0.109	-1.840	0.314	3.184
	50대	-0.156	0.228	-0.041	-0.682	0.312	3.20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434	0.461	-0.035	-0.943	0.798	1.253
	고등학교 졸업	-0.123	0.172	-0.037	-0.713	0.419	2.388
	대학교 졸업	0.042	0.147	0.014	0.285	0.435	2.300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0.039	0.249	0.007	0.155	0.477	2.097
	200~300만원 미만	0.294	0.202	0.085	1.453	0.323	3.098
	300~400만원 미만	0.375	0.207	0.102	1.813	0.347	2.882
	400~500만원	0.166	0.215	0.040	0.772	0.416	2.402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미만						
500~600만원 미만	0.390	0.216	0.093	1.806	0.413	2.420
600~700만원 미만	0.212	0.246	0.039	0.861	0.542	1.845
700~800만원 미만	0.611	0.251	0.107	2.435*	0.569	1.759
800~900만원 미만	0.318	0.311	0.040	1.023	0.716	1.396
F(p)	21.760***					
adj. R^2	0.504					
Durbin-Watson	1.898					

*p < 0.05, **p < 0.01 ***p < 0.001

※Reference group: 성별*남성, 거주지*동지역, 연령대*60대이상, 학력*대학원졸업이상, 월평균가구소득*900만원이상

3. 분석결과 함의

제주지역 문화만족도 조사 결과, 각 변수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문화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응답자는 본인의 지역의 문화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권역별 문화만족도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제주시 동지역 3.39, 서귀포시 동지역 3.16, 제주시 읍·면지역 2.93, 서귀포시 읍·면지역 2.75의 순서대로 문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제주도를 동지역과 읍·면지역 두 가지 권역만으로 구분하여 평균을 비교하여도 동지역 3.34, 읍·면지역 2.87 순서로 문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주장과 같이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문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5> 제주도 4개 권역별 문화만족도 집단별 평균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제주시 동지역	269	3.39	1.438
제주시 읍·면지역	67	2.93	1.531
서귀포시 동지역	86	3.16	1.254
서귀포시 읍·면지역	28	2.75	1.295
합계	450	3.24	1.422

<표 III-16> 제주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문화만족도 집단별 평균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동지역	355	3.34	1.398
읍·면지역	95	2.87	1.460
합계	450	3.24	1.422

전체 기술통계량을 분석해보면 응답자의 문화자본이 축적될만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향유하려는 의지와 관심 등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본인의 거주지역의 문화활동에 한계를 느껴 문화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 접근과 이용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면, 문화활동에 참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는 있으나,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은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내 불만한 문화콘텐츠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관련정보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경험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면, 어린시절 혹은 학창시절 본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경험은 부족했지만 자녀의 예체능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오는 등 본인 또는 자녀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비교적 접근이 힘든 고급 문화예술활동(오페라, 클래식 등)에 대한 향유는 적었지만, 전시나 공연 관람 후 관람평을 교환하는 등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한 응답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 결과, 문화자본이 아직 부족하지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과 경험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변량 상관분석으로 문화만족도와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거의 모든 항목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특히 거주지역 문화여건과 문화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항목보다 가장 높게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거주지역 문화여건이 높을수록 문화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제주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따라 각 항목 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6개의 항목에서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 학창시절 문화예술활동 경험 유무는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문화만족도, 관람형 문화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 거주지역의 불거리와 문화예술활동을 할만한 여건 등에서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시간적 여유와 거주지역의 문화환경, 문화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읍·면지역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시설접근, 문화향유여유, 거주지문화여건,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가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거주지문화여건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문화여건 즉 본인의 거주지에 양질의 문화컨텐츠와 문화 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문화만족도가 좋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며 본 연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문화여건에서 높은 평균을 가지는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지역보다 높아, 두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가구소득이 700~8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어느정도 수준에 있어야 문화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IV.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공급의 부분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축제의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축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공연장과 미술관이 크게 늘어나 관람형 문화컨텐츠가 늘어났지만 이용자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문화자본의 축적 없이 공급만 늘리게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적인 공급의 확장 보다는 문화자본의 축적을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회를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수요의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문화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문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문화자본이 축적될만한 경험이 부족하고 본인의 거주지역 내 문화환경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경제적·시간적 여유는 높고 공연의 이해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이용시설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문화여건이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축적을 위한 질 좋은 문화컨텐츠가 본인의 거주지역 내에 생겨난다면 앞서 나타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문화만족도의 접근은 문화시설접근 요인으로 알아보았다. 구체적 문항으로는 문화회관 및 복지관 이용빈도, 영화관 이용빈도, 공공박물관 이용빈도, 미술관 이용빈도, 도서관 이용빈도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하지만 모든 항목의 평균이 중간값인 4점보다 낮게 나타나, 응답자는 대체로 본인의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할

때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접근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도 각 시설의 접근이 높아질수록 문화만족도가 높아지지만 Pearson상관계수가 모두 0.4보다 낮아 거주지역의 문화활동 관련 여건, 볼거리, 정보 등의 항목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 정리한 바처럼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개소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문화시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만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예술활동 이용 기회 확장

문화만족도의 이용은 문화환경여유, 거주지문화여건 두 가지 요인으로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관람형·체험형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 본인의 거주지역 내 공연이나 전시 등 볼거리 유무, 문화예술활동을 할 만한 여건 유무,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습득 가능 여부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는 평균이 중간점수인 4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거주지역 내 문화격차에 대한 본인의 인식 등에 대해서는 4점보다 낮게 나타나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향유할만한 문화활동이 부족하다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문화컨텐츠 혹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관람형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와 거주지역 내 볼거리와 문화여건의 유무 등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문화시설접근, 문화향유여유, 거주지문화여건,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 중 문화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문화여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읍면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화격차는 문화예술활동의 이용 기회를 확장해주는 정책적 방안이 있어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경험의 축적 방안 마련

문화만족도의 경험은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 두 가지 요인으로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어린시절 문화경험, 학창시절 문화경험, 어린시절 문화서적 구매경험, 평소 고급문화향유 경험, 문화공연 이해정도, 공연 또는 전시 관람 후 관람평 교환 유무, 나 또는 자녀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 유무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과거의 문화경험은 대체적으로 평균점수가 중간값인 4보다 낮았으나, 공연 이해정도에서는 4점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 본인들이 느끼기에 경험은 부족하지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이해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만족도와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의 각 항목들 간 상관관계도 다른 요인의 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경험의 부족은 앞서 살펴본 접근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릴때부터 문화예술활동에 많이 노출되어서 문화경험이 축적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격차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 유형이 나뉘기 때문에 여러 선행연구들(박태선, 2014, 문순덕, 2015 등)에서도 해소 방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문화격차는 시설 등 물리적인 문화기반의 확장으로 해소가 가능해 단순히 공공의 예산만으로도 그 격차의 해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앞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단순한 시설확충만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경험적 문화격차는 장기간동안의 문화자본의 형성이 있어야 해소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문화여건이 좋다고 느끼도록 작은 단위의 마을마다 문화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설의 확충 없이 물리적 문화격차와 경험적 문화격차를 동시에 충족시킬만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새로운 시설의 건립보다는 지역 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도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균형있는 문화자본 축적을 위한 문화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그 지역과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V. 결론

경제적 요인으로 시작된 문화양극화는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나타났다. 제주지역 문화만족도 조사 결과, 각 변수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문화만족도가 3.24로 낮게 나타나 중간값인 4보다 낮으므로 대체적으로 응답자는 본인의 지역의 문화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권역별 문화만족도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제주시 동지역 3.39, 서귀포시 동지역 3.16, 제주시 읍·면지역 2.93, 서귀포시 읍·면지역 2.75의 순서대로 문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만 나누어본다면 동지역 3.34, 읍·면지역 2.87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문화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 간 제주도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역의 문화관련 정책이 안정감 있도록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순덕, 2015). 같은 시기 제주 공공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대비 미술관과 공연장이 증가하였다. 이는 관람형 문화콘텐츠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표의 최근 3년 간 도서관과 영화관을 제외한 문화시설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제주도의 전체 지역축제 참여율은 60.7%이고, 서귀포시(53.5%)보다 제주시(63.5%)의 지역축제참여율이 더 높았다. 지역축제의 수는 28~30개 정도이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2016년 지역축제 참여율은 43.5%로 2018년에는 지역축제 참여율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축제의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대비 서귀포시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축제의 수가 늘어남에도 축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서귀포시민의 참여는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험 즉, 문화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항목들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문화자본이 축적될만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경제적·시간적 여유는 높고 공연 이해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은 부족하고, 본인의 거주지역 내 문화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독립표본t검정분석 결과,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문화만족도에 중요요인 중 하나로 생각했던 접근의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없었으며, 이용의 항목 중 관람형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 거주지역 내 충분한 볼거리 유무, 거주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여건과 경험의 항목 중 학창시절 문화예술활동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또, 접근,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다섯 개의 요인으로 문화시설접근, 문화환경여유, 거주지문화여건, 문화향유경험, 문화향유태도 도출하였으며, 이 요인들이 문화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거주지문화여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격차 분석 결과, 읍·면지역은 문화만족도도 동지역보다 낮았으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와 여건 등이 동지역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읍·면지역이 학창시절 문화경험에 있어서 동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서우석 외(201)의 연구에서와 같이 동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제주도 전체가 어린시절에 형성되는 문화자본이 낮기 때문에 문화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는 많은 문화격차 관련연구와 정책들로 인해 제주도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에서 균형 있게 문화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해서 차차 그 격차를 완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의 IV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문화예술활동 이용 기회 확장, 문화경험의 축적 확대가 가능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시설의 개소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화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시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활동의 이용 기회를 늘려주어 어릴때부터 문화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민 교육, 전문가 양성 등 기존시설의 복합적인 문화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제주지역 문화기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인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문화시설부분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구분은 있었으나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구분이 없어,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문화격차의 공급측면인 물리적 문화격차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문화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제주도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문화격차를 주제로 하였으며, 향후 지역적 여건만이 아닌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격차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호진 (2004).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8(2): 23-40
- 구은자 (2012). 유년기 문화활동 유형이 성인기 문화활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12(1), 93-101.
- 권현정, 박화옥 (2008).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3), 535~553.
- 김동훈 (2019). '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정보서비스 개선방향 연구' 발표자료(2019,4,19), 한국문화정보원
- 김서용, 김혜선 (2007). "좋은 정부, 좋은 정책 : 제1회의 ; 문화정책과 문화자본 : 문화자본은 중요한가? -문화격차와 주관적 안녕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7.4 (2007): 157-177.
- 김순귀, 정동빈, 박영술 (2004). Comparative study on statistical packages for analyzing logistic regression - MINITAB, SAS, SPSS, STATA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15(2): 367-378.
- 김태형, 김미현 (2015).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9.3:1-28
- 나보리, 나은. (2019). 문화예술향유활동 만족도 연구 - 관람과 참여를 구분하여. 한국예술연구, (26), 323-346.
- 문순덕, 강세현 (2015).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연구." 『기본연구 2015-07』. 제주발전연구원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 253-277.
- 박용치 (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10: 120-147
-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15).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Brief』. (503): 1-8.
- 부르디외, P. (2006) 『구별짓기(상), (하)』 (최종철 역). 서울: 새물결.

- 서우석, 김정은. (2010).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문화경제연구 13.2 : 3-26.
- 신현택. (2002). "지역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훈영. (2008).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제2판)』. 서울;도서출판청람.
- 이훈영. (2006). 『이훈영 교수의 SPSS를 이용한 데이터분석(제2판)』. 서울;도서출판청람.
- 엄재연. (2007). "세계화와 부산지역 문화격차 실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07.5 : 203-223.
- 오인수. (2017). "역대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소비격차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40.- (2017): 31-63.
- 유재경, 권정숙, 조혜영. (2015). "예비유아교사의 유아기 문화경험과 문화자본이 문화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 인식 및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255-278.
- 이성용. (2018). 「제주지역 미분양주택 현황 및 특성」. 『정책이슈브리프』. Vol288. 제주연구원.
- 이재우. (2013). 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국토계획, 48(4), 95-115
- 이재희. (2010). "지방자치 이후 지역 간 문화격차 변동." 『지역사회연구』. 한국지역학회. 18(4): 53-72.
- 이지훈. (2016). "스토리텔링, 문화이용 목적, 접근성, 축진이 문화이용 만족 및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5 : 307-317.
- 이희진. (2015). "지역문화 기반 시설에 따른 문화격차."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15』.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99-307.
-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서울;진한도서.
- 유승호. (2008). 『문화도시;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서울;가씨.
- 장세길, 이중섭. (2013). "문화격차 해소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유형분류의 다층적 접근방법 모색." 지역사회연구 21.3 (2013): 131-148.
- 장혜미, 김재범 (2014). 「문화격차의 기존 개념과 정책적 인식의 한계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문화정책. (1): 167-182.
- 장혜미, 김재범. (2014). "문화격차의 기존 개념과 정책적 인식의 한계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 1.-2014: 167-182.

- 정광호, 최병구. (2006). "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지방정부연구』 10.4 : 63-89.
- 정대연. (2004). 『사회통계학』, 제주대학교출판부.
- 정홍익 외.(2008), 『문화행정론』, 서울: 대영문화.
- 정철현, 황소하. (2010). 예술마케팅 기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확대 방안. 서울도시연구, 11(1), 211-225.
- 제주특별자치도, 『2018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 조권중. (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정목, 박태진. (2019). 한국과 일본의 빈집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64: 239-260.
- 초의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1 (2009): 7-29.
- 최명길, 이귀옥, 박조원. (2017). 문화자본이 미술관 체험 만족 및 관람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 논총, 31(2), 55-73.
- 최영섭, 김민규. (2000). 한국인의 문화 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일 고찰 :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논총, 12.
- 최상미, 채성현. (2015). "저소득 노인의 인지된 문화접근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삶에 대한 만족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6. 417-447.
- 최셋별. (2006). 한국 사회에 문화 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3-158.
- 하미경, 윤동열. (2013).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및 개방성의 조절효과 -. , 20(5), 157-17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관계」. 『KCTI문화예술관광동향분석』. 2011-06.
- 한상우, 박기연, 박은주, 서유석, 강동욱, 박성재. (2009). "경상남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 1-111.
- 황동호, 채정우. (2017). 국내 유희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현황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13(6): 31-39.

- 해외문헌

- Bargonzi, L. S., & Smith, J. B. (1996a),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arts education on adult participation in the art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Research Division Report, 36, Santa Ana, CA: Seven Locks Press.
- Bargonzi, L. S., & Smith, J. B. (1996b), The effects of arts education on participation in the art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Research Division Report, 36, Santa Ana, CA: Seven Locks Press.
- Bourdieu, P. and Jean-Claude Passeron.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
- Bourdieu, P.(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Swedberg, R & Granovetter. M, (eds.) *The Sociology of Economics Life*, Boulder:Westview.
- Cadotte, E. R., Woodruff, R. B., & Jenkins, R. L. (1987). Expectations and norms in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4(3), 305 - 314.
- DiMaggio, P., & Useem, M. (1978), Social class and arts consumption: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class difference in exposure to the arts in America, *Theory and Society*, 5(2), 141-161.
- Krejcie RV, Morgan D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0;30(3):607-610. doi:10.1177/001316447003000308.
- McCain, R. A. (2003), Taste formation, In R. Towse(Ed.),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445-450, Cheltenham, UK: Edward Elgar.
- Morrison, W. G., & West, E. G.(1986), Child exposure to the performing arts: The implications for adult demand,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0(1), 17-24.
- Radbourne, J., Johanson, K., Glow, H., & White, T.(2009), *The audience*

experience: Measuring quality in the performing art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11(3), 16-29.

Robinson and Oppenheim, 1998; Burchardt et al., 2002; Bradshaw et al., 2000; .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제주특별자치도(<https://www.jeju.go.kr/>).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Disparities Solutions among Regions in Jeju Island

Bang Hyeon So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income polarization phenomenon occurred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and polarization has spread across various social sectors, including cultural polarization and regional polarization. This polarization has caused social conflict and hampered social integra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especially the township and myeon areas lack more opportunities to address cultural needs than the eastern region. Therefore, it was noted that the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was violated by the Constitution if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ultural activities by force depending on the area where they li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opportunities and satisfaction between the eastern reg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cultural satisfaction and make policy suggestions on ways to resolve cultural gaps. To this end, Jeju Island was divided into the eastern region, where cultural environment development was activated, and the village/myeon area with relatively insufficient cultural environment levels, and the physical gap and empirical gap were identified. The physical gap was analyzed in the literature, and the empirical gap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cultural satisfaction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hysical gap did not show muc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cultural satisfaction survey, the cultural gap between the Dong region and the eup/myeon area was revealed. In addition, among cultural facility access, cultural enjoyment, residential cultural conditions,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entertainment attitudes, the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ltural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residential cultural conditions. Therefore, the more satisfied the cultural conditions of the residence, the higher the cultural satisfaction level, and the higher the cultural satisfaction level in the Dong area compared to the towns and villages.

This study recognized the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of Jeju and suggested a solution. After looking at the cultural gap in the Jeju area, they suggested way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cultural facilities, expand opportunities to us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build up cultural experiences as a solution.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literature, this study found it difficult to grasp the physical cultural gap in the Dong, Eup, and Myeon areas.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on cultural gaps due to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conditions, as well as regional conditions, needs to be conducted.

Keywor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ultural Disparities, Influential Factors, Cultural Satisfaction, Balanced Development

□ Part III : 응답자 특성

2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6. 귀하의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27.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
28.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년제 대학교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⑥ 기타(_____)
29.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이상
30. 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세전)은 얼마나 됩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600만원 미만 ⑥ 600~700만원 미만
⑦ 700~800만원 미만 ⑧ 800~900만원 미만 ⑨ 900만원 이상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